

사업구조 개편 계획

2022. 09

DISCLAIMER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.

일부 내용에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 현황과 결과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졌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기타 경영환경 및 사업 여건 등의 변화 및 위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, 본 자료의 내용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당사는 명시적/암묵적으로 본 자료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CONTENTS

1 :: 추진 배경

2 :: 지배구조 개편

3 :: 사업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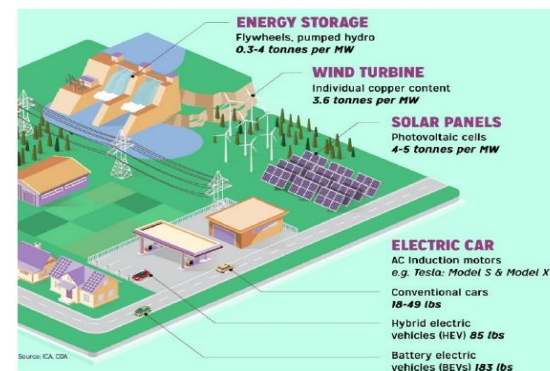
4 :: 주주 보호 정책

5 :: 향후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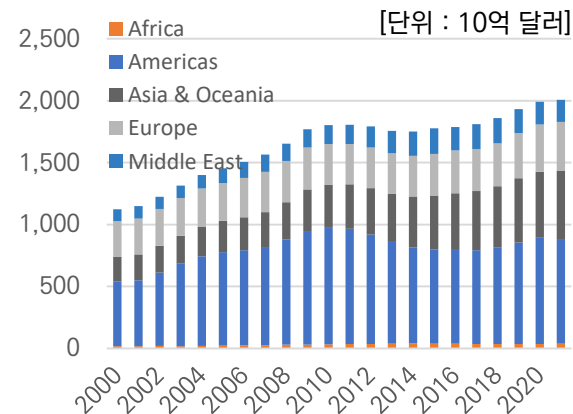
▶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

- Covid-19 영향으로 디지털화와 친환경 Revolution이 빠르게 진행
 - 4차산업(Big Data, AI, IT), 전기차, Green Energy 등
친환경 소재 및 제품 요구 확대
- 글로벌 재무장화 환경에서 방산업체의 대형화·전문화 심화
 - 우주·항공, 정밀유도무기, 미사일방위체계 등 미래 무기체계의 비중 확대
 -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재무장화 가속화
- ESG경영의 중요성 확대
 - 기업의 재무성과외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부문이 중요시되는 추세
(방산부문, 상대적으로 ESG에 취약)

Green Energy ⇨ 구리 수요 5배 증가



Global 방산 예산



▶ 사업 경쟁력

● 성장 정체 및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

- 신동 : 2011년 1.7조 달성 후 지속 감소 추세

생산 Capa. 및 판매량 정체('11년 18만 → '21년 19만MT)

⇒ 고기능성 소재로의 진출이 필연(투자, 디지털 전환)

- 방산 : 2017년 0.8조 달성 후 감소 추세로 전환

⇒ 재래식 탄약 중심의 한계 극복과 체계업체와 공존 전략 필요
(투자, 기술도입)

● 1社 2사업부 체제의 한계

-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,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 및
고도화 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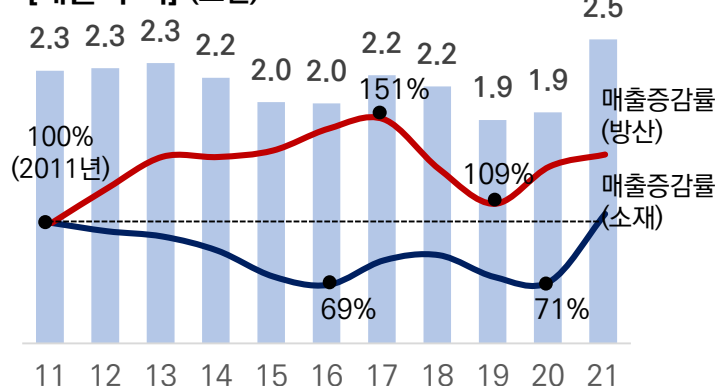
- 방산사업의 ESG 저평가 Risk ⇒ 향후 국내외 기관투자 유치 악영향

· (주)풍산이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블랙리스트에 등재

· 신동사업의 원재료 조달, 유럽 소전 입찰, 설비투자의 제한

- 방산에 요구되는 보안 기준을 전사에 적용함에 따른 비효율

[매출 추이] (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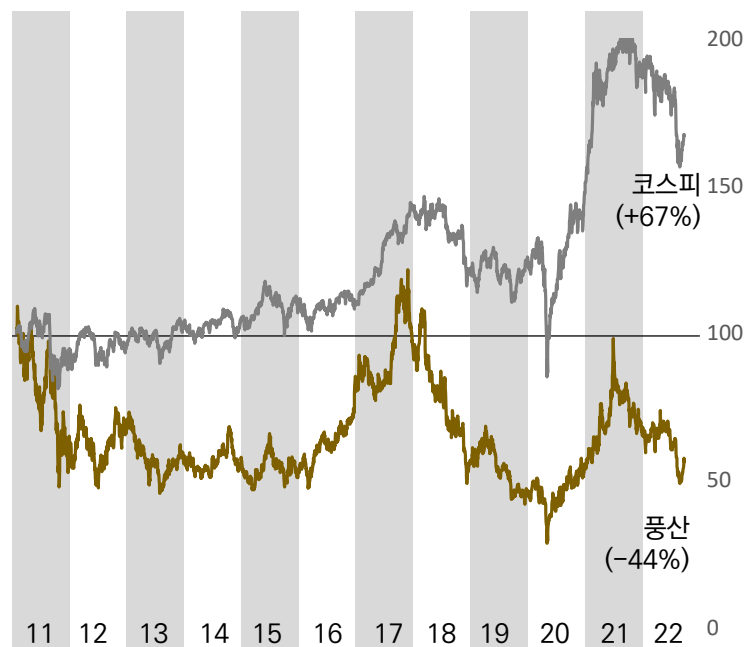
[해외 기관투자 Black List 지정]

네덜란드	ABP, APG, PGGM, Robeco
스웨덴	AP 윤리위원회, Nordea Asset Management, SEB
노르웨이	GPFG
호주	Hostplus, AMP Capital
뉴질랜드	NZ Super Fund
영국	AVIVA Group, Legal&General Investment/Management

▶ 주주가치 저평가

- 코스피 및 경쟁사 대비 저평가
- 주가추이는 소재사업의 경영성과와 깊은 상관관계 ⇒ 방산사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외면

[시가총액] ('11.1월 = 1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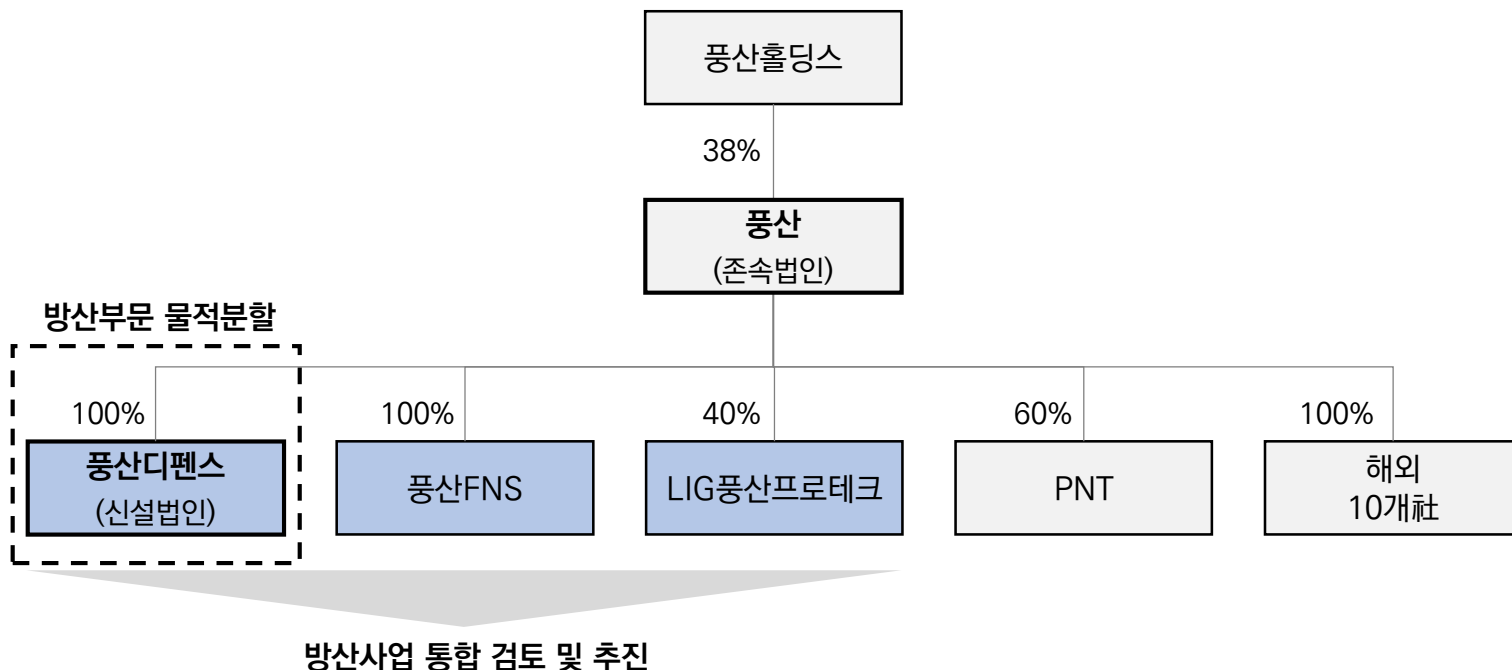


[PER·PBR 비교]

구 분		21년 말	22년 6월말
PER	풍산	3.59	3.05
	경쟁사(소재)	8.03	7.40
	경쟁사(방산)	12.02	33.15
PBR	풍산	0.52	0.38
	경쟁사(소재)	0.92	0.76
	경쟁사(방산)	1.06	1.03

사업구조 개편 - 지배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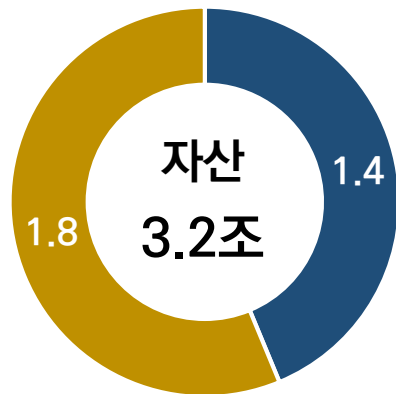
- (주)풍산의 방산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% 자회사로 신설
- 신설회사는 비상장 유지로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
- 향후 방산 관련 계열회사의 통합을 검토·추진을 통해, 사업 역량 집중 및 강화



사업구조 개편 - 재무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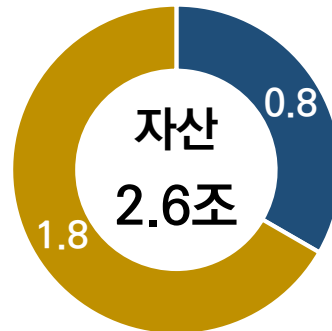
(주) 풍산

■ 순자산
■ 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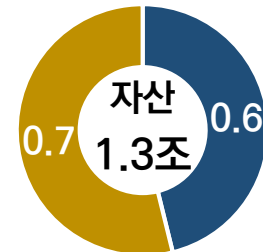
부채비율 81%
차입금 1.0조

(주) 풍산 (존속)



부채비율 49%
차입금 0.7조

(주) 풍산디펜스 (신설)



부채비율 80%
차입금 0.3조
※ 자산재평가 未반영

사업 전략

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여, 각 **사업부문의 전문화 및 고도화**를 추구

소재

- I Green 인프라 투자
 - 신재생에너지用 수요 증대
- I EV 전환 가속화
 - 이차전지, 차량반도체用 수요 증대
- I 친환경 소재

방산

- I 글로벌 재무장화
 - NATO, AUKUS, Quad 등
- I 독립화/전문화
 - Global Top-Tier 방산회사 최근 동향
- I 수출주도형 구조 전환

사업 분리

- I 사업부 책임경영 강화
 -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집중
 - 전문성 및 고도화 추구
 - 관리 비효율 제거
- I 소재 :: 안정적 이익 기반 강화
 -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재편, 능력 증대
 - 고기능 소재 R&D 강화
 - Smart 생산체계 구축
- I 방산 :: Global 기업으로 성장
 - 글로벌 경쟁력 강화 ⇨ 수출 확대(중대구경)
 - 탄약外 R&D 확대
 - 투자 및 M&A 통한 적극적 성장

사업 전략 :: 소재사업 - (주)풍산

혁신을 통한 **안정적 이익 기반** 강화
(2030년 세전이익 1,600억원 목표)

친환경 포트폴리오

Green·EV 소재

- I 이차전지·차량반도체·전장품
 - OFC
 - HPA(High Performacne Alloy)

I ESS·신재생에너지

친환경 소재

- I 무연소재
 - EU RoHS 규제 대응
- I 항균성 소재
 - Bio MediCopper

고기능소재 R&D

성능 개선 · 제품군 확대

- I 고전도도 (EV, 반도체)
 - P90Hyper, P1806Hyper

- I 충전도도·중강도 (자동차)
 - P64,P73,P74

- I 고강도 (Mobile, IT)
 - P1000HS Series

- I 무연소재
 - BioBrass3, 고강도 황동봉

SMART 생산체계

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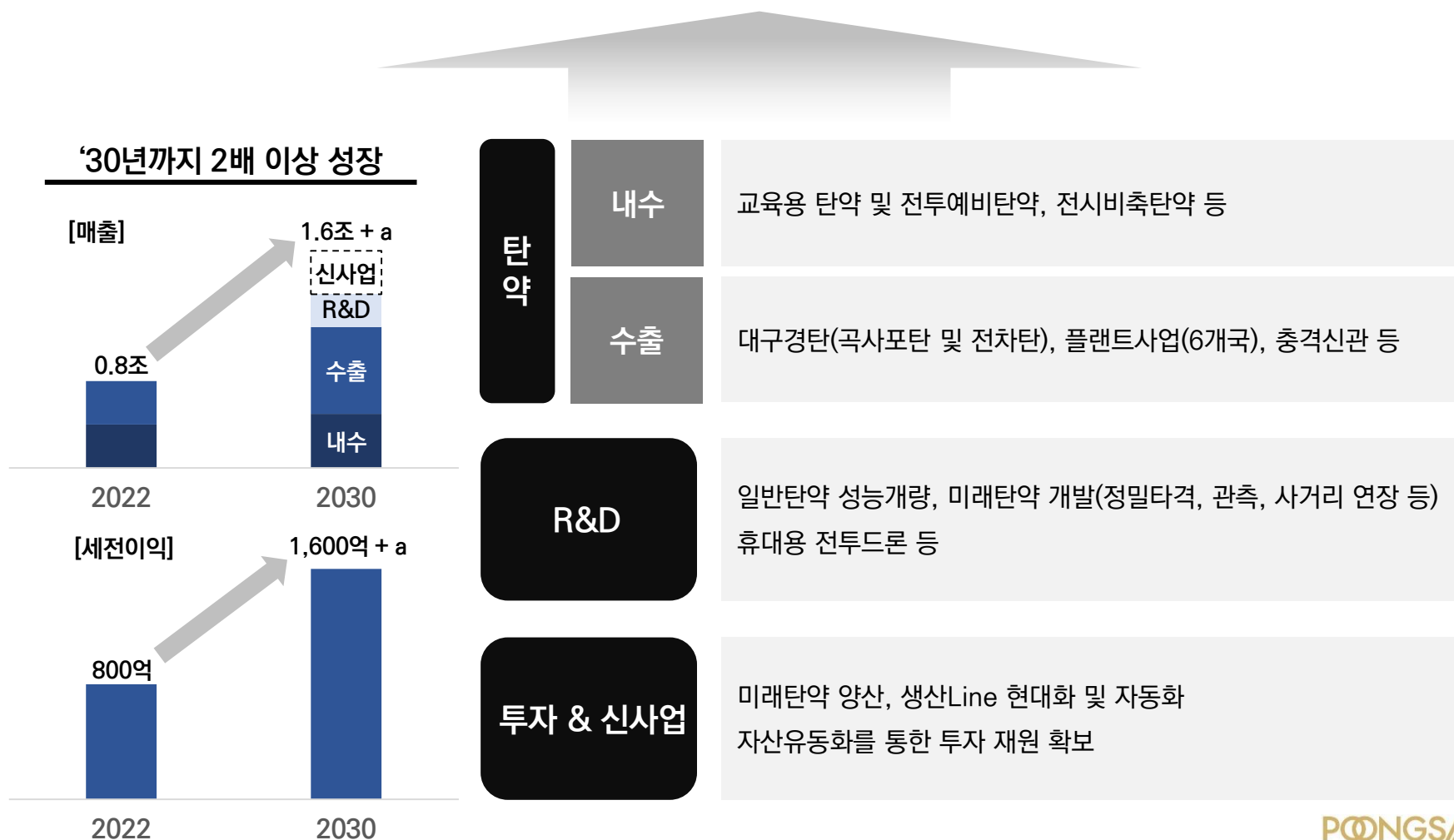
- I 압연박판 능력 증대
 - 주조로, 압연기, 소둔로 등

- I 도금Line 신규 증설
 - Capa. 증대 및 특수도금

- I 전사 스마트팩토리화
 - 현재 압출Line 구축진행중

사업 전략 :: 방산사업 - (주)풍산디펜스

Global 50위권 방산 전문기업으로 육성



사업 전략 :: ESG

방산ESG Risk의 확산 해소 및 사업 특성에 부합한 ESG 최적화

- 소재 :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준 정립
- 방산 : 사업의 특수성에 기한 별도 기준 마련

방산ESG Risk

- I 해외 기관투자의 블랙리스트 지정, 자금조달 애로
- I 제품 매출
 - 소전 : 유럽 조폐국향 입찰거래 제한
- I 수출입 금융
 - 유럽계 은행의 당사 신용장 취급 거부
- I 설비 구매 제한
 - 유럽 장비업체 제품 수입시, 방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 요구

최적화

ESG 추진 계획

- I 비전 및 목표 설정 (2022)
 - 사업별 ESG 비전 수립
 - 평가기관 및 평가기관 벤치마크 진단
- I 사업별 전략 수립 (2022)
 - 제품/상품, HR 전략, 공급망, 기후변화 규제, 고객/투자자 등 ESG 리스크 관리 대응
- I 추진 체계 구축 (2023)
 - 이사회, 조직 운영체계 구축
 - 평가 Process 구축
- I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 (2024~)
 - 정보공시 및 IR 활동

주주 보호 정책

주주권 보호

- 방산 부문 **신설회사는 비상장 유지**
- 상장 추진시 **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**가 있어야만 함을 신설회사의 정관에 반영
- **정기적인 IR활동**을 통한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

배당 정책

- 분할 전과 같이 **존속 및 신설회사의 연결순이익**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
※ 평가이익 등 非현금성 수익 조정
- **배당성향 20% · 시가배당률 3%** 목표
- 존속 및 신설회사의 성장을 토대로 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

향후 일정

9월 7일 (수)	이사회	
9월 22일 (목)	임시 주주총회 기준일	:: 권리주주 확정
10월 21일 (금)	전자투표 개시일	:: ~10월30일 17시
10월 31일 (월)	임시 주주총회	:: 오전 09시 · 풍산빌딩
12월 1일 (목)	분할 기일 · 신설법인 창립총회	
12월 2일 (금)	신설법인 설립 등기	